

## “첫번째 생존경쟁 관문 뚫어라”

### 허정무호 축구대표팀 오늘·내일 전훈 나설 25명 뽑아

‘첫 번째 경쟁 관문을 뚫어라.’ 축구대표팀이 26일과 27일 이틀간 경기도 파주 NFC(대표팀트레이닝센터)에서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을 대비해 국외 전지훈련에 나설 25명을 뽑는다.

이번 테스트에는 대표팀 예비 명단 35명 중 일본 프로축구 J-리그 교토 퍼플상가로 이적한 수비수 광태휘, 같은 팀의 수비수 이정수, 김근환(요코하마), 미드필더 박주호(가시마), 공격수 이근호(이와타) 등 일본과 5명과 러시아 무대로 진출한 미드필더 김남일(폼 톱스크) 등 총 6명을 뺀 29명이 참가한다.

김남일과 일본 J-리그 5명은 소속팀 경기 일정과 동계훈련과 겹치면서 내년 1월4일부터 남아프리카공화국 스페인으로 이어지는 대표팀 전지훈련에도 불참할 가능성이 크다.

허정무 감독은 26일 진행할 체력 테스트를 앞두고 “예비 명단에 오른 선수들이 사망 감으로 몸을 만들어달라는 의미가 있다. 전 쟁터에 나갈 수 있도록 몸가짐이 제대로 됐는지 보겠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태극전사들의 강한 체력이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고지대 약조건을 딛고 사상 첫 월드컵 원정 16강 꿈을 이룰 수 있는 밑바탕이 된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허정무 감독이 최근 선수들의 과학적인 체력 관리를 위해 ‘저승사자’로 불렸던 레이몬드 베르하이엔(39) 피지컬트레이너를 영입한 것도 이 때문이다.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 지역의 왕복달리기 등 혹독한 체력훈련으로 한국의 4강 신화에 디딤돌이 됐던 베르하이엔 트레이너는 남아공 전지훈련에 동행한다.

체력 테스트는 심폐 기능을 확인하는 20

m 왕복달리기와 35m를 전력으로 여섯 차례 달리는 무산소성 스프린트, 지구력 측정 순으로 진행된다. 대표팀은 선수들의 몸에 무선 전송장치를 부착해 실시간으로도 선수들이 훈련 후 피로 회복 속도를 확인할 예정이다. 이 테스트는 월드컵까지 선수들의 몸 상태 변화를 체크하는 자료로 활용한다.

27일에는 자체 연습경기를 통해 선수들의 실제 감각도 확인한다.

허정무 감독은 “젊은 선수 중에 월드컵에 이바지하고 우리나라 축구의 뒤를 이어갈 재목감이 나오기를 바라고 있다. 35명에서 25명으로 추려지더라도 내년 2월 동아시아 연맹 대회 엔트리가 35명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시 박차고 뛰어올 가능성이 있다. 이번에 탈락하더라도 실망하지 않고 희망을 품고 더 발전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공중회전 짜릿

아이다호주의 제렛 피터슨이 24일(한국 시간) 스티븐스 스프링 스키장에서 열린 에어리얼올림픽에서 스키 공중회전 묘기를 펼쳐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 日 피겨 아사다

## “내년 전주 선수권 반드시 출전 할터”



올 시즌 부진한 모습을 보인 일본 피겨의 간판 아사다 마오(19·사진)가 내년 1월말 전주에서 열리는 4대륙 선수권대회에 출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스포츠넷폰, 스포츠호치 등 일본 스포츠신문은 25일 일본 피겨선수권대회(25-27일·오사카)에 출전하는 아사다가 “이번 대회에서 올림픽 출전권을 따내는 것을 전제로 내년 1월27일 전주에서 열리는 4대륙 선수권대회에 출전할 생각”이라고 보도했다.

이날 일본피겨선수권대회가 열리는 오사카 나미가와 돐을 찾아 비공식 연습을 진행한 아사다는 “매년 나가는 대회이기 때문에 출전할 생각”이라며 밴쿠버 동계올림픽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이지만 “신경쓰지 않는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맨유 지성 “산타가 된다면 승리 선물 하겠다”

부상 후유증으로 출전 기회가 많지 않은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박지성(28·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이하 맨유)이 팀 승리에 열망을 보였다.

박지성은 25일(한국시간) 구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 인터뷰에서 재기에 강한 의지를 보이면서 직접 경기에 나서 팀 승리에 힘을 보태겠다는 뜻을 전했다.

박지성은 이번 2009-2010시즌 초반 독감과 무릎 부상 후유증으로 12경기 연속 결장하다가 지난달 26일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를 통해 복귀전을 치렀고 지난 13일 애스턴 빌라와 경기에서도 선발로 62분을 뛰었다.

그러나 지난 20일 풀럼FC와 경기 때는 교체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도 알렉스 퍼거슨 감독의 호출을 받지 못해 웨스트햄과 경기에서 이어 정규리그에서 2경기 연속 결장했다.

그는 ‘산타클로스가 된다면’이라는 질문에 “승리를 선물하겠다”라고 대답하고 나서 “이정용(불탄)은 워낙 잘하고 있어 쫓겨 없어요. (선물을 준다면) 목도리가 좋겠네요”라고 말했다.

한편 맨유는 28일 오전 1시 킹스텐커뮤니케이션스 스타디움에서 헐시터와 정규리그 19라운드 원정경기를 치르는 데 박지성은 출격 명령을 기다린다.

/연합뉴스

## 셀틱서 첫 훈련 성용 “곧 나의 실력 보이겠다”

스코틀랜드 프로축구 셀틱FC에 합류한 축구대표팀 미드필더 기성용(20)이 소속팀에서 첫 훈련을 소화하며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셀틱 인터넷 홈페이지는 25일(이하 한국 시간) ‘기성용, 셀틱과 훈련’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고 “기성용은 26일 해밀턴 아카데미

미켈과 홈 경기에서 팬들에게 소개될 것”이라고 전했다. 2010년부터 셀틱 유니폼을 입고 경기에 나설 수 있는 기성용은 훈련에 앞서 가진 인터뷰에서 “새로운 팀에서 처음 하는 연습이라 다소 낯설다. 그러나 동료 선수들이나 팬들에게 나의 능력을 보여줄 자신이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PGA챔피언십 챔프 양용은 부시 전 미대통령과 라운드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PGA챔피언십 우승자 양용은(37)이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과 골프를 함께 했다.

양용은과 부시는 23일(한국시간) 미국 텍사스주 델러스의 브루크 할로우 골프장에서 만나 동반플레이를 했다고 국내 모 그룹의 관계자가 24일 전했다.

이날 친선경기에서는 양용은과 부시 전 대통령측 인사 2명, 부시 전 대통령이 방한했을 때 친분을 쌓았던 국내 기업 회장이 함께 했다. 양용은은 지난 8월 PGA챔피언십에서 우승한 뒤 소속사이자 용품업체 테일러메이드 본사를 방문했을 때 우연히 부시 전 대통령과 만나 라운드를 약속했다.

하지만 바쁜 일정 때문에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던 양용은은 4개월여만에 골프를 함께 했다.

/연합뉴스

## 생활 게시판

### 환축

- ▲정영하(조경사업)·전현욱씨 장남 진명군 유취문(외항선사업)·박영희씨 장녀 원의양=26일(토) 오후 1시 순천 미림 웨딩하우스.
- ▲박형남(목포해양대학교 사무국장)·정순남(태봉초등학교 교감)씨 장남 준규군 신희중(광덕고등학교 교장)·유항희씨 장녀 지연양=27일(일) 오후 1시10분 광주 조선컨벤션 1층(영빈관)
- ▲김순석(서울 대성중학교 교사)씨 장남 상진(현대중공업)군 영동련(전남 여자상업고등학교)·양현자(순천 대석초등학교)씨 장녀 혜경(광천초등학교 행정실)양=27일(일) 오후 1시30분

### 웨딩의 전당 금호3층(노블레스홀)

### 무음

- ▲박병욱씨 별세 철균·영균·순애·혜영씨 부친상=발인 27일(일) 화동 금호장례식장 401호. 062-227-4000.
- ▲유영숙씨 별세 김동일·동문·동천·동희·동순·동욱씨 모친상=발인 27일(일) 화동 금호장례식장 201호. 062-227-4000.
- ▲박갑순씨 별세 나봉조·봉수·암순·복순씨 모친상=발인 26일(토) 화동 금호장례식장 402호. 062-227-4000.
- ▲심상조씨 별세 창섭·보희·보경씨 부친상=발인 26일(토) 무등장례식장 101호. 062-515-4488.
- ▲정복련씨 별세 지상휘·대휘·애자·선희·승희·영자씨 모친상=발인 26일(토)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3분향소. 062-231-8903.

## CBS

광주 CBS TV 경진

영·혼을 사로잡는 힘

◆ 방송 10년 ◆ 케이블 TV 동시 4번 20번 ◆ 4주 10회, 시상식 1회, 방송 4회

광주CBS가 영·혼을 사로잡는 힘을 보여주기 위해 마련합니다

문의: 062-376-8607